과호보적 양육행동에 관련된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

김 경 미*(충북 청주 서청주유치원 원장)
김 영 희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개인발달 심리학 이론, 애착이론,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세운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통하여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부모교육과 실제 아동상담에서 활용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에 있는 2개의 유치원과 2개의 어린이집에 만 3, 4, 5세 아동을 둔 어머니 각각 175명과 228명으로 총 403명이었다.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LISREL Ⅷ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경험은 신경증적 성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아동기에 과보호적 양육경험이 많을수록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경험은 신경증적 성향에는 정적인 영향력을 분리불안에는 부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쳐 어머니가 거부적 양육경험을 많이 할수록 신경증적 성향은 높아지지만 분리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적응성은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어 아동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향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향은 분리불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신경증적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분리불안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분리불안을 많이 보일수록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경험이 신경증적 성향과 분리불안을 통하여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경험이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향과 분리불안을 통하여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 번째, 아동의 적응성이 분리불안을 통하여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은 신경증적 성향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경험과 거부적 양육경험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